

대기업에서 대학으로 중심전환될까?



오늘의 대학

21세기를 향한 길목에서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대학간의 유기적 협동연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재조각을 불러일으킨다. 기술경쟁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산업발달에 필수적인 인력을 공급하면서 기초 및 응용과학의 지식적인 대학에 산업계와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이윤과 직결되는 기술혁신의 과실을 거두고, 나아가 산업계의 연구개발비용을 극소화하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전하는 것은 제헌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가장 현실적인 통로가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국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94의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1986년 설립된 포항공대도 이듬해 발족한 산업과학 기술연구소 간의 산학협동 체계이후, 현재 기업과 대학간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교류방안으로 제시되는 '특약학과 제' 및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소 설립으

5. 우리학교의 산학협동 현황과 K·S·P유치 가능성

94년 경기도 지역 컨소시엄의 6개 대학 사업과 학생들의 학과를 보면 A대가 29981백만원, S대가 29178백만원, 본교가 295157백만원이다. (2) 그러나 대학지원금 내역은 거의 전부가 출연금, 해당 도 보조금, 업체 분담금으로 완산하면 본교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할 경우 본교의 연구 규모나 실적은 이들 대학보다 많이 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연구 건수와 금액에 있어 상대적으로 본교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과학분야에서 산학협동의 장래 요인이 기업체의 일부 학과에 대한 편향 투자라는 사실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상충과지를 갖는 연구단이 기업으로부터 후대받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초

경희 45주년 산학 협력 기술원 개원 축하



산학협동은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각 대학은 산업체와의 연계를 사활을 걸고 있다. 시점은 지난 5월 27일 우리학교 산학협력기술원 개원식 모습.

특히 실질적 산학협력 형태인 기업체의 위탁 연구 및 공동 연구지원 금액으로만 비

(표 1) 연구비 계약, 임금, 자금현황 단위: 천원

기	간	계약액	과제수	계약액	과제수	계약액	과제수	총	계
94년3월1일	~94년11월25일	1,690,034.00	102	2,876,089.20	208	4,566,123.20	310	52,094.00	
93년3월1일	~93년11월25일	944,665.00	67	2,058,505.00	141	3,003,171.00	208	97,53.00	
92년3월1일	~92년11월25일	580,423.00	52	939,954.00	74	1,520,377.00	126		

(표 2) 지역컨소시엄 대학별 사업비 확정 내역 단위: 천원

대학별	지역 컨소시엄	연구과제	계	정부출연금	도 보조금	대학지원금	설계부담금
계	21	19	1,477,115	400,000	450,000	115,000	512,115
수원대학교	18	18	219,000	68,000	75,000		76,000
경희대학교	13	13	267,115	68,000	75,000		98,000
명지대학교	21	21	211,000	66,000	75,000		70,000
성균관대학교	15	15	278,000	66,000	75,000	45,000	97,000
아주대학교	15	15	291,000	66,000	75,000	75,000	75,000
한양대학교	16	16	221,000	66,000	75,000		80,000

다라고 스스로 밝혀진 않지만 이미 상당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기존의 노도를 전지하는 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은 중점적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발전체제의 일환으로 준비중인 K-S-P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모든 대학에서 초기의 관심이다. '내재에 부응하는 지역 산업 사회로의 전환 및 경기도 내의 대외경쟁력 함양과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목표로 93년부 2월22일부터 10년간 2차에 걸쳐 나

사할 K-S-P사업은 전 국 중소기업의 26%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의 1만5천여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도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산소 지역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제 2중공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학내 공동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부설첨대 대학의 조건 K-S-P, 즉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을 하는 연구 단위로 지역산업 단계를 나눈다. 상공이나 기술 고도화 고 관해하는 일까지 지원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와 연구 인력은 물론이며 연구 및 개발업무의 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써 산업체의 기술력, 학술적 성과를 만족시키는 교육적 여건이 '인적 송부'임을 강변한다.

KSP유치 가능한가? 현재 이 사안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대학의 모든 여원을 불려, 우리대학이 참여대학에 포함되리라'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지만, 유지하는 방법 또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여론도 많지 않다. 원-루트(one-root) 즉, '하나의 지원방안'에 하나의 집행처에서 관제하에 하는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 부분 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여론의 이면에는 우리 대학과 유적정경 관계에 높은 대학들은 우리대학보다 더 높게 유지여부를 다룬다고 할 정도로 다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지여부를 다룬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원-루트(one-root)제다. 원 루트라는 말은 원래 대학 산학협동의 말집지력을 확대 확대 해설해서 '관제하'에 포함되어 있으면 종합센터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서 정지 혹은 아직까지 '하'나로 묶을 것인가? 몇가지 나쁜 것인지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정이 무리

수원산학협동, 공대중심 약 45억원으로 경기도 선두 K·S·P, 각 대학 이해관계 얽혀 티당한 결정 필요

특히 실질적 산학협력 형태인 기업체의 위탁 연구 및 공동 연구지원 금액으로만 비

수원산학협동, 공대중심 약 45억원으로 경기도 선두 K·S·P, 각 대학 이해관계 얽혀 티당한 결정 필요

수원산학협동, 공대중심 약 45억원으로 경기도 선두 K·S·P, 각 대학 이해관계 얽혀 티당한 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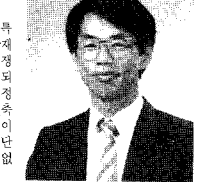
수원산학협동, 공대중심 약 45억원으로 경기도 선두 K·S·P, 각 대학 이해관계 얽혀 티당한 결정 필요

K·S·P 유치계획 입안한 오환섭(공대 기계공)교수

▲현재 KSP설립 계획안에 대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 소재한 많은 대학들이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SP의 의미와 그 기능은 무엇인지—

—KSP(Kyunggi Science Park)의 정확한 의미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KSP는 대기업 성장과 중소기업의 발달을 위한 자금과 기술의 집대성 열매를 극대화한 중소기업용 거시적 안목과 현실적 대안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만해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28개교로서 전국대학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높아 가는 산학협동의 측면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KSP유치와 대학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학내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개관적 조건은 유리, 늦어도 내달 확정 K·S·P 포용할만한 내부역량 성숙이 중요

제시 되어왔던 지원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론과 실질적 경험의 결합은 곧 우수인력의 배출을 의미하므로 대학교육의 질적개선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기업사

▲향간 'KSP'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몇몇대학의 특수성을 살펴 각 부문별로 분산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사업부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마치 사업동작을

▲향간 'KSP'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몇몇대학의 특수성을 살펴 각 부문별로 분산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사업부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마치 사업동작을

▲향간 'KSP'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몇몇대학의 특수성을 살펴 각 부문별로 분산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사업부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마치 사업동작을

▲향간 'KSP'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몇몇대학의 특수성을 살펴 각 부문별로 분산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사업부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마치 사업동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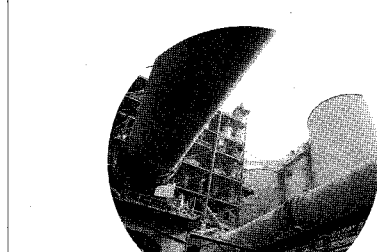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K-S-P가 대학을 근거로 산학·협의 총체로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게 될 경우, 대학적이나 다름과 같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초과학기술, 정보(도자, 자료)연구 인력,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을 산업체와 공동 활용함으로써 설계 산

K-S-P의 입지결정이 필지 않은 지금, 그 부가 benefit에 합리적이라고 타당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한층 중론 불허 예상되는 타지역에서의 산학협력체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모든인의 조심스런 전망이다. (최성호는설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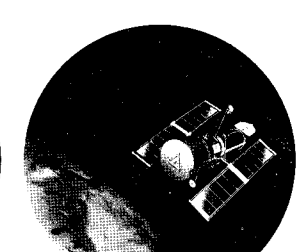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70년대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석탄산업으로 한창의 기세를 일으켰던 동양그룹의 초기 모습입니다.



80년대 ~ 90년대
종합금융산업 제 2차추진에 힘입어 증권, 담보, 보험 등을 제 2차 종합금융으로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현재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 산업 등으로 2차추진에 힘입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에 미리 산악하는 미래에 있습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석탄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났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르며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 미래의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생명보험·동양매직·오리온프리트레이·동양SHL·동양예은·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산업기계·동양파이낸스·서남재단

